

성명서

그 동안 교수 성폭력의 문제는 은폐되어 왔다. 그 것은 교수 성폭력 사건의 발생의 빈도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분명한 위계질서와 대학사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대학은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도, 처리기구도, 제도적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 곳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례였다.

여러분은 우조교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신정휴 교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1992년부터 2000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던 이 사건은 이 사회에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그 간의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신정휴 교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반면, 가해자는 여전히 강단에 서강의를 하고 있다.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창원대의 S교수의 경우 교육부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역시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한 강원대의 K교수도 교육부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동국대 사건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대학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린 교수를 교육부가 복직 판정을 내렸다.

여전히 대학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학생은 약자이며, 가해자인 교수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학생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난한 싸움을 시작할 각오를 해야한다. 서강대학교의 K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였으며, 피해자는 박사과정 3학기의 학생이었다.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박사 논문을 포기해야 했고, 공부를 중단하고 이루어질 긴 싸움을 각오해야 했으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했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 차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인 학생이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해결 과정의 부담까지 피해자 개인에게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교수 성폭력이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만남이 잦은 대학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특수한 권력 관계로 말미암아 대학원생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로 서야하며, 한 학교 내에서의 교수-학생간의 권력 차로 말미암아 약자인 학생 주체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그리고 2001년 2월 4일 경희대 총여학생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강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경희대 L교수 사건, 동국대 K교수 사건, 서강대 K 교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의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해결 원칙을 세워나가며, 필요한 제도적 절차와 기구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대학 사회내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